도서관인의 窓

우리도서관에 대한 斷想

한 학기를 마무리 하는 시점이다.

한 학기 동안 학부의 문헌정보학전공 학생들과 편집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 부설되어 있는 한국사서교육원 학생들로부터 제출받은 과제물들을 읽어보면서, 우리 도서관에 대한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 때마침 지난 6월 19일에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한 "사서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김태승교수의 기조연설의 일부분도 생각난다. 무슨 대단한 생각도 아니며, 그렇다고 새로운 생각도 아니다. 그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의 편린들이 조금은 색다르게 내게 다가 왔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김태승 교수는 상기 토론회의 기조연설에서 "우리 도서관계가, 사서들이 일심단결하여 도서관을 통해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이루어 간다면 우리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과연 지금까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해 왔는지를 냉정하게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우리 사서들은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또한 이용자들로부터 도서관의 존재가 인식되고, 신뢰받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 사서들이 즐겨 사용하는 "도서관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국가, 사회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장래는 도서관에 달려있다"는 명제가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도서관이라는 기관과, 그 곳에서 일하는 우리 사서들이 국가, 사회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주목받고, 신뢰받고 또한 존경받게 되는 시대를 맞이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달려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여기에 소개하는 두편의 글은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되어 오던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 사서들을 짜증스럽게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조금은 색다른 필자들이, 그들이 보고 느끼고 있는 바를 프로가 아닌 아마츄어로서, 연습생으로서 또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기술한 것이기에 좀 색다른 점이 있다.

편집자는 이번 학기동안 아래에 소개하고 있는 몇 편의 글을 학생들에게 읽도록 제시하고, 그 글들을 읽고 난

뒤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정리하도록 하였다. 제시한 글들은 깊이 있는 연구논문도 아니며, 체제가 갖추어진 글도 아닌 국내의 도서관 상황과 외국의 도서관 상황을 소개한 신문기사에 불과하다.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도서관의 모습을 알게 하기 위한 시도와 이용자에게 가까운 도서관의 모습을 그려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제를 부여한 것이다.

여기에 소개하는 글들의 필자들 중 한 사람은 도서관과 관련을 맺고 살아가야 할 자신의 미래의 삶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학부 3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며, 다른 한 사람은 동덕여대 국문과를 졸업한 후 출판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사서로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한국사서교육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다. 그들의 생각들이 날카롭기도 하며, 가상(?)하기도 하여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람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들의 글이 너무 무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며, 도서관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항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일부 도서관과 사서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일반적인 현실이 아닌가. 여기에 두편의 글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도서관과 사서들을 욕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편집자를 포함한 우리들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필자들의 허락을 얻어 수정없이 그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에 학생들에게 소개한 신문기사들을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꼭 일독을 권하고 싶다.

1. 사는 이야기: 오마이〈미국사는 이야기〉2 - 도서관에 갔다오면 부자가 된다 -. OhmyNews(인터넷 신문): http://www.ohmynews.com (장성희 기자, 2000년 2월 26일)
2. 사는 이야기: 오마이〈미국사는 이야기〉3 - 나는 잠옷입고 도서관 갔다 -. OhmyNews(인터넷 신문):http://www.ohmynews.com (장성희 기자, 2000년 2월 28일)
3. 사는 이야기: 오마이〈미국사는 이야기〉4 - 기를 쓰고 도서관에 가는 이유 -. OhmyNews(인터넷 신문): http://www.ohmynews.com (장성희 기자, 2000년 3월 3일)
4. 주간조선, 2000년 3월 9일. 특집 〔잠자는 도서관〕 - 미국의 도서관: 시민들이 키우는 지식공간: http://weekly.chosun.com
5. 주간조선, 2000년 3월 9일. 특집 〔잠자는 도서관〕 - 일본의 도서관; 비디오-CD까지...주민편의 공간: http://weekly.chosun.com

편집자 이 은 철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eclee@slisnet.skku.ac.kr)